당굿과 당제를 지내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완도-15-20-1-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완도
수령	537년
수고	20m
흉고둘레	7.2m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4-8

34˚21′40.00″N
126˚43′47.00″E

옛날 화살을 쏘는 무술연마의 장소에 있는 보호수(완도-15-20-1-2) 느티나무는 고목(노거수)의 팽나무와 한자리에서 이웃하여 잘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37년으로 추정되나 마을 사람들은 600년이 넘었다고 주장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72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이 굵으며 사람 키 높이에서 3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가지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 있다. 군데군데에서 외과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주변은 뿌리 보호를 위하여 흙을 북돋아 주었고 담장을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장좌리 당굿 및 당제(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와 관련이 있다. 당제를 지내는 당집은 2곳인데, 한 곳은 마을 안쪽 사장나무(느티나무와 팽나무) 거리에 있고, 다른 한 곳은 마을에서 300m 떨어진 장도라는 섬에 있다. 당제는 정월 초 사흘날부터 준비하여 대보름날 해가 떠오를 시각에 맞추어 행해진다. 사장나무는 활쏘기하는 곳 사장射場의 나무를 말하며, 현재 느티나무와 2그루의 팽나무가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당제를 준비할 때는 우선 사장나무 주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상왕봉에서 파온 흙으로 신성지역을 상징하는 금표를 한다. 또한 사장나무에는 금줄을 둘러 신성한 곳임을 표시한다. 오늘날에는 당굿과 길굿, 선상굿, 샘굿, 사장굿을 치고 당주(제주) 집에서 지신밟기를 끝으로 당제를 끝낸다. 당제 날 샘굿에 이어 마지막으로 굿을 치는 곳이 사장나무이다. 사장굿은 3그루 모두에서 차례대로 친다. 이는 사장나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일 년 동안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잘 자라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새들이 느티나무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팽나무의 잎이 고르게 잘 나오면 논밭에 풍년이 들며,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김, 미역 등이 잘 자라났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나무이고, 마을의 자랑이며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하다.